

# 中原郡 彌勒里 石窟實測調査報告書에 대하여

宋 旼 求

中原郡 彌勒里 石窟은 忠州와 聞慶을 連結하는 線과 小白山脈이 가로 질러 이루는 鷄立嶺에 位置한다.

年代는 알 수 없으나 學者들은 900-940年 사이로 推定하고 있다.

그러한 것은 앞으로 正確한 것이 밝혀 질 것으로 생각되나, 問題는 同報告書 p. 123에 있는 平面構成에 대한 解釋이다.

많은 努力이 傾注되어 推定한 尺度가 밝혀진 것은 높이 評價하고 싶으나 解釋에 있어서는 未備함을 면치 못한다.

「前室의 柱間 13,00尺, 10.00尺等은 主室과 間隙을 맞춘 것이긴 하나 主室에서 처럼 3이라는 數字와의 연관성은 적어지고 색다른 상황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主室의 종단에서 찾을 수 있는 數値와 횡단에서 찾을 수 있는 數値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수 밖에 없다.」라는 대목과 「 $18:13=1.3846:1$  즉  $\sqrt{2}:1$ 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주고 있어서…」라는 두가지의 解釋의 誤謬를 指摘하고 싶다.

原來 古代에는 東西을 莫論하고 그 宇宙觀形成이 수와 같은 關係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 古代 Greece에서는 Pythagoras가 그 代表的 思想家이며 東洋은 陰陽五行說, 天文思想, 周易 모든 것이 數와 關連안된 것이 없다.

數라 할지라도 특히 整數를 발함이며 自乘根을 神聖不可侵의 數로 幾何學的 作圖에서는 求하여 지기도 하고 求하였으나 數로서 計算하지 않았으며 不盡根數를 감히 끝까지 計算하는 것도 不可能하다.

따라서 直角三角形을 이루는 三邊의 連比 3:4:5에 대하여는 Greece에서는 神聖不可侵의 三角形이라고 하여 그의 神秘로움을 찬양하여 現在 우리들도 建築을 할때 십

지어 木手까지도 이것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 以外的 Pythagoras 定理가 成立되는 많은 整數解에 대하여는 無知한 탓으로 간혹 誤謬를 범하게 된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나라 古建築의 解釋에 있어서도 그러한 缺陷을 품고 있다는 것을 筆者는 機會있을 때 마다 強調하고 있다.

中原郡 石窟의 경우는 13.00尺 10.00尺이라는 數値는 直角三角形이 整數比로서 이루어 지는 5:12:13의 連比에서 나온 數値이다.

5:12:13의 連比에 의한 直角三角形은 古代 Mesopotamia에서 많이 利用이 되었다고 數學史에서 指摘이 되고 있으며 이 連比는 太陰歷과 같은 關係가 있다. 또 實際로 Mesopotamia 地方에서는 太陰歷이 發達하였으며 Mahomet 教에서 쓰는 Hegira 歷 또한 그러한데에서 緣由된다.

따라서 中原郡 彌勒里 石窟은 5:12:13의 直角三角形에서 이루어 지는 數値이며 특히 重要的한 것은 5:12:13이 지닌 太陰歷의 意味이다.

원래 太陰歷에서는 閏年 즉 1년이 13個月이 되는 것이 5년에 2回, 19년에 7回됨으로서 地球의 公轉·自轉에서 생긴 時差가 깨끗이 없어진다.

石窟의 平面을 觀察하면 13의 數値를 가진 Span이 BC, CD, DE, 區間에서 本尊佛이 있는 部分만 빠져서 7個 Span이 있다. 이것은 1년이 13個月인 閏年이 7個 있어서 19年을 象徵하는 뜻과 깨끗이 時差가 없어진다는 淨土의 뜻도 內包식힌 기가 막힌 平面構成의 意味인 것이다.

다음은 AB, EF 區間은 10尺部分 端狹間外에는 Span과 Bay의 數字의 組合은 10과 9 즉 19를 暗示한다. 이것 역시 19年 즉 時差가 없어지는 해의 暗示인 것이며 端

